

#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양 남 영<sup>1</sup> · 문 선 영<sup>2</sup>

<sup>1</sup> 건양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sup>2</sup> 신흥대학 간호과 부교수

##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Yang, Nam Young<sup>1</sup> · Moon, Sun Young<sup>2</sup>

<sup>1</sup>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sup>2</sup>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Shin Heung College

### 주요어

임상실습, 셀프리더십,  
스트레스, 만족도

### Key words

Self-leadership, Stress,  
Satisfaction, Clinical practice

### Correspondence

Yang, Nam Young  
Department of Nursing,  
Konyang University  
685, Gasoowon-dong,  
Seo-gu, Daejeon, Korea  
Tel: 82-42-600-6347  
Fax: 82-42-545-5326  
Email: nyayang@konyang.ac.kr

투 고 일: 2011년 5월 12일  
수 정 일: 2011년 6월 14일  
심사완료일: 2011년 6월 23일

### Abstract

**Purpose:** In this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among nursing students in clinical practice was examined. **Method:** The participants were 273 nursing students. Data collected from September to December 2010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The mean scores for self-leadership ( $3.72 \pm .41$ ), stress ( $3.45 \pm .59$ ), and satisfaction ( $3.11 \pm .38$ ) in clinical practice were above average. Self-leadership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yea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tress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gender, year, and health status.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was significantly different according to year,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Significant correlations were found between self-leadership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Year, self-leadership, interpersonal relationships, and stress in clinical practice were factor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20.0%). **Conclusio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re is a need to improve self-leadership, and to lessen stress in clinical practice to improve nursing students'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The above-mentioned resul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development of effective teaching methods for clinical practice.

##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간호교육은 학생으로 하여금 전문 간호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실제 간호 상황에 적용하는 방법과 기술

을 습득하여 이론과 실재를 상호 연결할 수 있도록 시행되어야 하는 교육 과정이므로 이론 교육과 더불어 임상실습은 필수적인 요소이다(Ha & Choi, 2005). 특히 임상실습을 통하여 학생은 다양한 간호현장을 경험함으로써 간호의 기본 역할과 기술을 학습하고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수행능력을 획득할 수 있도록 폭넓게 준비하는 과정을 배우게 된다(Park, 2009). 그러

나 임상실습은 간호대학생에게 배운 이론적 간호 지식을 임상에 적용하는 어려움, 역할의 모호성, 예상치 못한 위기상황, 대상자와 보호자와의 대인관계, 역할수행, 과중한 업무, 무력감, 능력부족, 무능함, 불확실성, 환자와의 관계에서 정서적으로 마음 상하는 것, 통제력 부족, 지도교수와 동료들과의 관계 형성에서 당면하는 괴로움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제공하고 있다(Kim & Lee, 2005; Park, 2008; Whang, 2002; Whang, 2006; Xabier et al., 2007). 이러한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는 임상실습에 대한 흥미와 요구 및 인내력을 감소시킴을 물론 학습능력 저하와 부정적인 실습경험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감소시키고 있는 실정이다(Won et al., 2000).

그간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시간, 실습평가의 개선, 가족지지 등의 변수가 연구결과로 제시되었지만(Gu, 2008; Lee, 1980; Lee, 2006; Lee, Kim, & Kim, 2004), 이상에서 제시한 것 이외에도 간호대학생의 개인적 특성 또한 중요하게 전제되어야 할 부분이라 할 수 있다(Park, 2008). 임상실습의 경우, 간호대학생은 다양한 환경에서 여러 경험을 통해 문제해결 과정에 참여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을 통하여 얻은 자신에 대한 신뢰감은 결국 원만한 대인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바탕이 되어 리더십과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지만,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없으면 간호행위가 올바르게 수행할 수 없다(Ha & Choi, 2005). 또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 때 자율적이고 책임감 있는 학습이 이루어져 효율적인 실습 교육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추후 간호사로서 자신의 미래를 긍정적으로 설계해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적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것을 활용하기 하기 위한 전략으로 자신에게 스스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 자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과정(Neck, Stewart, & Manz, 1995)을 의미하는 셀프리더십 함양을 생각해볼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즉 자기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로서 자신으로 하여금 높은 성과를 올리도록 이끌어주는 자율적인 힘이다(Manz & Sims, 1991). 현대의 작업 환경은 스스로 주도적이며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독립성을 지닌 개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셀프리더십의 개념은 전문성 및 개인의 효과성, 그리고 내적통제위의 맥락에서 설명되어 왔다(Kang, Choi, Park, & Kim, 2010; Kazan, 2000). 셀프리더십이 높은 개인은 그렇지 않은 개인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셀프리더십의 속성은 업무 수행 과정에 반영되어 보다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수행 결과를 이끌어내게 된다(DiLiello & Houghton, 2006; Kang et al., 2010).

선행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의 결과 변수로 몰입, 자율성, 신뢰, 독립성, 긍정적 정서, 직무만족, 심리적 임파워먼트, 자기효능감, 창의성, 혁신성 등이 제시되었다(DiLiello & Houghton, 2006; Ha, 2007; Kim & Hong, 2007; Manz & Sims, 1991; Neck & Houghton, 2006; Neck et al., 1995; Park & Park, 2008).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간호사의 조직몰입 정도와 직무만족도 및 간호업무 수행 정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는 결과를 나타냈고(Kim & Hong, 2007; Park & Park, 2008),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Park(2009)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스트레스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하였다. 또한 신세대 군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셀프리더십은 강한 자부심과 자기 성취욕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으로 행동하며 남의 간섭보다는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것을 좋아하는 신세대의 성향에 더욱 부합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셀프리더십을 통해 길러진 자율적이며 유연한 사고는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대처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여(Ha, 2007), 임상실습을 하는 신세대인 간호대학생에게 셀프리더십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줄여주어 임상실습의 만족도를 증가시켜 줄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파악하고 동시에 그 관련성을 규명하여 효율적인 임상실습 교육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또한 추후 이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셀프리더십을 함양하는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한다면 궁극적으로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진시키게 되어 간호학적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정도를 파악한다.

## 연구 방법

###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파악하고, 제 변수 간의 상관성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 2.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연구자의 편의추출에 의해 D광역시와 K도 소재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이면서 1학기 이상의 임상실습의 경험이 있는 학생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참여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과 설문지 작성 중 언제라도 연구의 참여를 포기할 수 있음을 설명한 후 동의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무기명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작성하게 하였다.

연구 대상자 수는 G power program(Faul, Erdfelder, Lang, & Buchner, 2007)을 사용하여 산출해보면 다중회귀분석을 위해 유의수준  $\alpha = .05$ , 효과크기(effect size)는 회귀분석의 중간크기로 .15, 검정력(power)는 95%, 예측변수를 2개 정도로 감안하며 본 연구에서 필요한 최소 표본수 107명이 필요하나 중도 탈락의 우려를 고려하여 280명을 대상으로 정하였다. 자료 수집방법은 연구대상자가 설문지에 직접 답하도록 하였으며 이 중 자료가 부실한 7부를 제외하고, 273부를 연구 결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 도구

#### 1) 셀프리더십

셀프리더십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해 사용되는 사고 및 행동전략의 일체(Manz & Sims, 1991)를 말한다. 셀프리더십은 Manz(1983)가 개발하여 Kim(2002)이 수정보완한 셀프리더십 측정도구 18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 구성은 도전의 극복과 과업의 성공적인 수행과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인 '자기 기대' 3문항, 어떤 일을 실행하기에 앞서 깊이 생각하고 미리 연습하는 태도인 '리허설' 3문항, 목표를 설정한 후 이들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실행을 지시하는 행동을 의미하는 '목표설정' 3문항, 자기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물질적 보상과 추상적인 무형의 보상인 '자기보상' 3문항, 일이 잘못되었

을 때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의식적인 자기징계인 '자기비판' 3문항,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로 여기기보다는 기회요인으로 보는 긍정적 사고패턴을 의미하는 '건설적사고' 3문항으로 되어있고,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셀프리더십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Kim(200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7$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1로 나타났다.

#### 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임상실무 실습에 대한 불안, 공포 등의 부정적 요인으로 인하여 효율적으로 임상실습을 진행하는 데 방해가 되는 상태(Whang, 2006)를 말한다.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Whang(2002)이 개발한 임상실습 스트레스 측정도구 57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문항은 상황특성, 개인특성, 외부적 조정요인 등 3개의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위영역으로 상황특성에는 의료인의 태도 6문항, 환자와 보호자 태도 6문항, 실습환경 8문항, 실습상황 9문항, 역할갈등 2문항이었다. 개인특성에는 심리적 요인 7문항, 지식과 기술적 요인 6문항, 사회적 요인 4문항이었고, 외부적 조정요인에는 과제물 4문항, 학사일정 5문항이 구성되었다. Likert 5점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높은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Whang(2002)의 개발 당시 Cronbach's  $\alpha = .94$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 3)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만족도는 임상 실습내용, 실습지도, 실습환경, 실습 시간 및 실습평가에 대한 반응의 정도(Lee, 1980)를 말한다. 임상실습 만족도는 Lee(1980)가 개발한 것을 Lee(2006)가 수정보완한 임상실습 만족도 측정도구 27문항으로 실습내용 6문항, 실습지도 7문항, 실습환경 6문항, 실습시간 4문항, 실습평가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은 Likert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 5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보통이다' 3점, '그렇지 않다' 2점,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으로 부정적인 문항은 역으로 환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신뢰도는 Lee(200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 .86$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7로 나타났다.

### 4.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통계

처리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는 t-test, ANOVA로 분석하였으며 ANOVA 분석 후 평균비교는 사후검정 Scheffe로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산출하였고,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영향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고, 이 때 임상실습 만족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은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다중회귀분석 후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은 다중공선성, 잔차, 특이값 등으로 확인하였다.

## 연구 결과

### 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성별은 남자 29명(10.6%), 여자 244명(89.4%)이었다. 학년은 3년제 2학년 93명(34.1%), 3년제 3학년 82명(30.0%), 4년제 3학년 54명(19.8%), 4년제 4학년 44명(16.1%)이었다. 종교가 있는 대상자는 136명(49.8%), 종교가 없는 대상자는 137명(50.2%)이었고, 건강상태는 '매우 나쁨' 2명(0.7%), '나쁨' 16명(5.9%), '보통' 107명(39.2%), ' 좋음' 97명(35.5%), '매우 좋음' 51명(18.7%)이었으며 대인관계는 '매우 나쁨'은 전혀 없었고, '나쁨' 2명(0.7%), '보통' 96명(35.2%), ' 좋음' 139명(50.9%), '매우 좋음' 36명(13.2%)이었다. 전공 지원 동기는 '성적에 따라' 18명(6.6%), '부모님이나 주위의 권유' 76명(27.8%), '취업이 잘 돼서' 72명(26.4%), '적성에 맞아서' 107명(39.2%)이었다. 전공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불만족' 4명(1.5%), '불만족' 11명(4.0%), '보통' 93명(34.1%), '만족' 136명(49.8%), '매우 만족' 29명(10.6%)이었고, 졸업 후 희망 진로는 '병원 취업' 214명(78.4%), '대학원 진학' 16명(5.8%), '보건교사' 10명(3.7%), '간호직 공무원' 33명(12.1%)이었다(Table 1).

### 2.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셀프리더십으로 측정된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2±.41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보상 4.02±.21점, 목표설정 3.84±.62점, 자기기대 3.77±.53점, 리허설 3.67±.59점, 자기비판 3.48±.76점, 건설적 사고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Gender	Male	29(10.6)
	Female	244(89.4)
Year	College 2nd	93(34.1)
	College 3rd	82(30.0)
	University 3rd	54(19.8)
	University 4th	44(16.1)
Religion	Yes	136(49.8)
	No	137(50.2)
Health status	Very poor	2( 0.7)
	Poor	16( 5.9)
	Moderate	107(39.2)
	Good	97(35.5)
	Very good	51(18.7)
Interpersonal relationships	Very poor	0( 0.0)
	Poor	2( 0.7)
	Moderate	96(35.2)
	Good	139(50.9)
	Very good	36(13.2)
Application motivation	School record	18( 6.6)
	Inducement	76(27.8)
	Job abroad	72(26.4)
	Interest	107(39.2)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dissatisfied	4( 1.5)
	Dissatisfied	11( 4.0)
	Moderate	93(34.1)
	Satisfied	136(49.8)
Plans for after graduation	Very satisfied	29(10.6)
	Hospital nurse	214(78.4)
	Graduate course	16( 5.8)
	School nurse	10( 3.7)
	Government officials	33(12.1)

3.38±.65점 순이었다.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5점 만점에 평균 3.45±.59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외부적 조정요인 3.78±.79점, 개인특성 3.41±.73점, 상황특성 3.39±.65점 순이었다. 외부적 조정 요인에서는 과제물 3.97±.87점, 학사일정 3.59±.83점이었고, 개인특성에서는 심리적 요인 3.80±.80점, 지식, 기술적 요인 3.45±.85점, 사회적 요인 2.99±.91점이었으며, 상황특성에서는 의료인의 태도 3.35±.79점, 환자와 보호자의 태도 3.29±.94점, 실습환경 3.35±.72점, 실습상황 3.26±.70점, 역할갈등 3.68±.89점이었다.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1±.38점이었다. 하부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실습환경 3.30±.50점, 실습시간 3.19±.65점, 실습내용 3.15±.48점, 실습평가 3.07±.64점, 실습지도 2.85±.60점이었다(Table 2).

<Table 2> Degree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73)

Variables		M±SD	Range	
Self-leadership	Self-compensation	4.02±.21	1~5	
	Goal-setting	3.84±.62		
	Self-expectation	3.77±.53		
	Rehearsal	3.67±.59		
	Self-criticism	3.48±.76		
	Constructive thinking	3.38±.65		
	Total	3.72±.41		
Stress in clinical practice	External regulators	Assignment reports	3.97±.87	1~5
		Academic schedule	3.59±.83	
		Total	3.78±.79	
	Situational characteristics	Attitude of medical personnel	3.35±.79	
		Attitude of patients/family	3.29±.87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5±.72	
		Clinical practice situation	3.26±.70	
		Role conflict	3.68±.89	
		Total	3.39±.65	
	Personal characteristics	Psychologic factors	3.80±.80	
		Knowledge/skills	3.45±.85	
		Social factors	2.99±.91	
		Total	3.41±.73	
	Total	3.45±.59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Clinical practice environment	3.30±.50	1~5	
	Clinical practice time	3.19±.65		
	Clinical practice content	3.15±.48		
	Clinical practice evaluation	3.07±.64		
	Clinical practice instruction	2.85±.60		
	Total	3.11±.38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은 학년(F=5.43, p=.001), 대인관계(F=7.17, p<.001), 전공에 대한 만족도(F=6.68, p<.001)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성별, 종교, 건강상태, 전공 지원 동기, 졸업 후 희망진로에 있어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셀프리더십은 학년에 있어서는 4년제 3학년이 3년제 2학년보다 높았고, 대인관계에서는 ' 좋음'과 ' 매우 좋음'이 ' 나쁨'보다 높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 매우 만족'이 ' 매우 불만족'과 ' 보통'보다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t=-2.87, p=.007), 학년(F=8.25, p<.001), 건강상태(F=3.91, p=.004)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종교, 대인관계, 전공 지원 동기, 전공에 대한 만족도,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에 있어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높았고, 학년에는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이 3학년 2년제보다 높았으며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 나쁨'이 ' 보통'과 ' 매우 좋음'보다 높았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년(F=12.10, p<.001), 대인관계(F=4.34, p=.005), 전공에 대한 만족도(F=3.18, p=.014)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종교, 건강상태, 전공 지원 동기, 졸업 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일반적 특성 중 차이가 있는 부분의 사후분석 결과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년에는 4년제 3학년이 3년제 2학년,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보다 높았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 좋음'이 ' 나쁨'보다 높았으며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 매우 만족'이 ' 보통'보다 높았다(Table 3).

4.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관계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성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만족도(r=.23, p<.001)

**(Table 3)** Differences in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273)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leadership		Stress ICP*		Satisfaction ICP*	
			M±SD	F/t(p)	M±SD	F/t(p)	M±SD	F/t(p)
Gender	Male <sup>a</sup>	29	3.78±.41	.75	3.07±.76	-2.86	3.22±.40	1.69
	Female <sup>b</sup>	244	3.72±.41	(.456)	3.49±.56	(.007) b>a	3.09±.38	(.092)
Grade	College 2nd <sup>a</sup>	93	3.62±.39	5.43	3.23±.51	8.25	3.02±.31	12.10
	College 3rd <sup>b</sup>	82	3.73±.37	(.001)	3.62±.67	( $<.001$ )	3.08±.38	( $<.001$ )
	University 3rd <sup>c</sup>	54	3.89±.51	c>a	3.48±.58	b,d>a	3.37±.43	c>a,b,d
	University 4th <sup>d</sup>	44	3.73±.31		3.56±.49		3.03±.30	
Religion	Yes	136	3.76±.39	1.24	3.49±.65	1.25	3.12±.38	.53
	No	137	3.69±.43	(.215)	3.40±.54	(.213)	3.09±.38	(.596)
Health status	Very poor <sup>a</sup>	2	3.50±.08		3.75±.04		3.02±.18	
	Poor <sup>b</sup>	16	3.69±.32		3.93±.56	3.91	2.92±.40	
	Moderate <sup>c</sup>	107	3.71±.45	.24	3.40±.57	(.004)	3.08±.36	1.52
	Good <sup>d</sup>	97	3.73±.37	(.914)	3.48±.57	b>c,e	3.15±.41	(.196)
	Very good <sup>e</sup>	51	3.75±.44		3.31±.64		3.15±.35	
Interpersonal relationships	Poor <sup>a</sup>	2	2.94±.72	7.17	3.68±.24		2.89±.12	4.34
	Moderate <sup>b</sup>	96	3.60±.50	( $<.001$ )	3.48±.58	.71	3.01±.34	(.005)
	Good <sup>c</sup>	139	3.77±.31	c,d>a	3.46±.60	(.545)	3.18±.39	c>a
	Very good <sup>d</sup>	36	3.89±.38		3.32±.61		3.09±.37	
Application motivation	School record	18	3.73±.45		3.45±.62		3.13±.34	
	Inducement	76	3.66±.37	2.10	3.49±.52	.51	3.07±.39	.36
	Job abroad	72	3.80±.37	(.100)	3.48±.64	(.673)	3.12±.39	(.781)
	Interest	107	3.72±.41		3.39±.61		3.12±.38	
Satisfaction with nursing as a major	Very dissatisfied <sup>a</sup>	4	3.51±.39		3.58±.48		3.10±.35	
	Dissatisfied <sup>b</sup>	11	3.64±.41	6.68	3.47±.53	.99	3.05±.27	3.18
	Moderate <sup>c</sup>	93	3.61±.51	( $<.001$ )	3.41±.65	(.416)	3.03±.41	(.014)
	Satisfied <sup>d</sup>	136	3.75±.31	e>c,a	3.42±.56		3.12±.37	e>c
	Very satisfied <sup>e</sup>	29	4.02±.29		3.64±.60		3.31±.26	
Plans for after graduation	Hospital Nurse	214	3.68±.43		3.43±.57		3.11±.38	
	Graduate course	16	3.94±.35	2.20	3.63±.53	1.82	3.16±.46	.54
	School Nurse	10	3.83±.39	(.088)	3.13±.78	(.144)	3.13±.40	(.654)
	Government officials	33	3.76±.28		3.55±.67		3.03±.34	

\* ICP in clinical practice

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를 보였고,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r=-.12$ ,  $p=.026$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였다(Table 4).

**(Table 4)** Correlation among the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73)

	Self-leadership	Stress in clinical practice
	r(p)	r(p)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23( $<.001$ )	-.12(.026)

#### 5.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정도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대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설명력을 검증하고, 어떤 변수가 더 강력한 예측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단계별 다중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때 임상실습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일반적 특성 중 차이를 보인 학년,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를 포함시켰다. 이 중 학년은 더미변수로 변환하였는데 4년제 3학년 집단을 기준변수로 투입하였다. 산출된 임상실습 만족도의 회귀모형은 유의하였고( $F=14.02$ ,  $p<.001$ ), 영향요인은 학년, 셀프리더십, 대인관계 및 임상실습 스트레스였으며, 이들 4개 변수는 임상실습 만족도를 20.0% 예측 설명하였다. 임상실습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측요인은 학년( $\beta=.29$ ,  $p<.001$ )이었고, 셀프리더십( $\beta=.18$ ,  $p=.003$ ), 대인관계( $\beta=.14$ ,  $p=.026$ ), 임상실습 스트레스( $\beta=-.12$ ,  $p=.048$ ) 순이었다(Table 5).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분석의 가정을 검증하기 위하

**(Table 5)** Variables influencing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N=273)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B	$\beta$	R <sup>2</sup>	Adj R <sup>2</sup>	t	p	F	p
Year	0,27	,29	,13	,12	4,73	<.001		
Self-leadership	0,17	,18	,04	,16	2,95	,003	14,02	<.001
Interpersonal relationships	0,11	,14	,02	,17	2,24	,026		
Stress in clinical practice	-0,08	-,12	,01	,18	-1,99	,048		

여 잔차의 등분산성, 정규분포성, 다중 공선성 진단분석 결과, 공차한계(tolerance)가 .928~.999로 .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IF)는 1.001~1.077로 10이하를 보여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잔차분석 결과, Durbin Watson 검정결과는 1.704로 2에 가까워 모형의 오차항 간에 자기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잔차의 등분산성과 정규분포성 가정을 만족하였다.

## 논 의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셀프리더십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72점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와의 비교에서는 연구대상자의 수가 다르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들이 다르므로 단순히 점수만 가지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한 Park(2009)의 3.56점, 간호사를 대상으로 연구한 Seomun, Chang, Cho, Kim과 Lee(2006)의 3.51점, Kim과 Hong(2007)의 3.50점, Kim(2007)의 3.61점, Park과 Park(2008)의 3.58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Kang 등(2010)의 3.72점/5점과는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하루영역별 평균 점수를 살펴보면, 자기보상, 목표설정, 자기기대가 높은 순인 반면 건설적 사고는 낮은 순으로 나타나 Park(2009), Kim과 Hong(2007), Seomun 등(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확신이 높고 목표를 설정한 후 스스로 실행에 옮기며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며 자신이 수행한 도전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스스로에게 보상을 부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행동을 갖고 있는 반면에 어려운 상황을 장애물이 아닌 또 하나의 기회로 전환하여 생각하는 긍정적인 사고 패턴은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셀프리더십은 개인적 특성으로서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개인에 따라 그 잠재력에 차이가 있으며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고무되어 발전하고 유지될 수 있는 개념이다(Manz & Sims, 1991). 따라서 셀프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고 만들어지는 것이므로(Angelucci, 2005; Henrikson, 2006; Kim, 2007), 본 연구 결과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있어서는 긍정적 사고력을 키워 건설적 사고 영역의 부족함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을 우선 강조하는 훈련과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일반

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은 학년,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를 보여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Park(2009)의 연구와 연령, 인간관계와 관련이 있었다는 Kim(2007)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그간 연구되어진 대상자가 간호사가 대부분이어서 본 연구대상자와 비교할 수 있는 일반적 특성 항목은 일치하지 않지만 셀프리더십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사후 분석에서 셀프리더십은 4년제 3학년 학생이 3년제 2학년 학생보다 높았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셀프리더십은 학습이나 교육을 통하여 발전하고 유지되는 개념(Manz & Sims, 1991)으로 간호대학생의 자아발전 및 자기계발을 위한 노력 즉 셀프리더십은 대학생활을 경험하는 시기인 학년에 따라 증가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인관계에서는 ' 좋음'과 '매우 좋음'이 '나쁨'보다 높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서는 '매우 만족'이 '매우 불만족'과 '보통'보다 높았다. 이는 긍정적 사고 양상을 가진 개인은 그렇지 못한 개인보다 셀프리더십이 높다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추후 셀프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은 학년을 포함한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되고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대상자가 지각한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점수는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Park(2008)의 3.43점, Park(2009)의 3.21점, Kim과 Lee(2005)의 3.33점보다 높게 나타났고, Whang(2006)의 3.56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연구자마다 대상자 수와 학년을 달리하여 연구하였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대체로 이전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며 추후 스트레스 요인을 분석하고 보다 더 적극적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 연구 진행을 제안한다. 하루영역별 분석에 있어 외부적 조정요인의 과제물이 3.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Park(2008), Park(2009), Whang(2006), Kim과 Lee(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과제가 학생들에게 여전히 스트레스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들의 과제물에 대한 태도 및 요구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과제가 스트레스 요인이 아닌 효율적인 학습의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개인 특성의 심리적 요인이 3.80점

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중 간호학 전공에 대한 신념이 확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자존감과 인격이 손상당하는 느낌을 받았고, 자신의 무능력함, 실수에 대한 불안이나 두려움 및 실습을 잘해야 된다는 긴장과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임상실습을 지도하는 교수자는 단순한 기술적 교육에만 치중하는 지도가 아닌 학생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여 그에 따른 적합한 긍정적 강화를 주는 정서적 지지가 포함된 실습 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성별, 학년, 건강상태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성별, 건강상태,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Park(2009)의 연구와 학년, 학과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다는 Kim과 Lee(2005)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사후분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성 역할 정체성 유형 중 여성형이 남성형에 비해 스트레스를 높게 지각한다는 Park(2008)의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학생의 특성 중 임상실습에 스트레스로 작용하게 되는 요인들을 적절히 분석하여 여학생의 임상실습에서의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이 3학년 2학년 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임상실습을 이제 막 시작한 3년제 2학년에 비해 졸업을 앞둔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은 졸업 후 진로와 짧은 시기 안에 직면하게 될 간호사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담감 등이 가중되어 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나게 된 결과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학년별로 임상실습에 임하는 태도 및 관점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추후 성별, 학년별 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히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적절한 대처를 위한 중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사후분석에서 건강상태가 나쁜 학생이 건강상태가 보통이거나 매우 좋은 학생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임상실습에 대한 스트레스를 감소할 수 있다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임상실습 시작 전부터 학생들의 좋은 건강관리를 위한 안내 및 지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대상자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1점이었다. 이는 Park(2008)의 2.96점, Gu(2008)의 3.01점, Park(2003)의 2.76점보다는 높은 점수이다. 이 또한 앞서 서술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마다 대상자의 수가 다르고 평균에 대한 표준편차가 달라 점수만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본 연구에서도 여전히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하부영역별 분석에서

는 실습환경이 가장 높고 실습지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 실습환경 영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Gu(2008)의 연구와 실습지도 영역이 가장 낮게 나타난 Lee 등(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대학별로 질적으로 우수한 실습병원 선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과목별 적절한 실습장소 제공 및 실습 장소별 적합한 학생 수 배치 등이 잘 고려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임상실습 지도자에 의한 교수 학습보다는 병실 업무 위주의 실습을 진행하고 있고 실습내용과 과제를 학생과 함께 계획하고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부족함 등이 있어 실습지도와 관련된 만족함은 낮은 수준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더욱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 만족도는 학년,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보여 학년과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Gu(2008)의 연구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Park(2003)의 연구와 연령,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는 Lee 등(2004)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사후분석에서 4년제 3학년이 3년제 2학년, 3년제 3학년과 4년제 4학년보다 높았다. 이는 학제간 및 학년간 교육과정에 따른 실습 환경 및 실습내용, 시간 등에 차이를 보여 이러한 결과를 나타냈다고 생각되어지며 추후 동일한 학제간, 학년별 집단을 구분하여 비교하는 연구의 진행을 제안하며 간호대학생의 양적인 팽창으로 인한 실습 장소의 부족으로 학년별 적합한 임상실습 교과과정에 따른 실습 환경 마련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학생들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충분히 이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대인관계가 좋은 학생이 나쁜 학생보다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았고,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만족하는 학생이 보통인 학생보다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임상실습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실습 전에 원활한 대인관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이나 훈련이 제공되어야 하며 실습 전 이론 교육 시간을 통하여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하여 자부심 및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신입생의 경우 자의에 의한 전공 선택인 경우 임상실습 만족도가 높으므로(Lee, 1980), 학생 선발시 이점을 충분히 고려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구대상자의 셀프리더십,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 간의 상관성은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관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의 관계를 보여 셀프리더십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한다는 Kim(2002), Ha(2007), Kim과 Hong(2007), Kang 등(2010)의 연구와 같은 맥락을 보이고 있고,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적을수록 임상실습 만족도가 증가한다는



Park(2009)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학년, 셀프리더십,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변수의 총 설명력은 20.0%를 나타냈다. 이는 임상실습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리더십을 제시한 Ha와 Choi(2005),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제시한 Park(2008)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학년이 가장 큰 영향을 준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임상실습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학년별로 적합한 실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임상실습을 수행하는 학생의 학년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습내용, 환경, 시간을 계획하여 실습지도 및 평가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임상실습 만족도는 개인의 특성에 따른 셀프리더십을 함양하여 임상실습에 대한 자기효능감을 증가시키고, 원활한 대인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다양한 측면의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면 충분히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에 따라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일 전략으로 학년별 수준에 적합한 실습 교과과정을 운영하고 실습에 임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학생들이 셀프리더십과 대인관계를 함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간호대학생의 개별적, 집단적 특성을 고려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훈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의 간호대학생이 경험하는 임상실습 관련 스트레스 요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중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결 론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지각한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임상실습 만족도를 알아보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되었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들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만족도는 보통 이상의 수준이었다. 일반적 특성 중 학년,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셀프리더십은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성별, 학년, 건강상태에 따라 임상실습 스트레스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년, 대인관계, 전공에 대한 만족도에 따라 임상실습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간호대학생의 셀프리더십과 임상실습 만족도, 임상실습 스트레스와 임상실습 만족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학년, 셀프리더십,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확인되었고, 이들 변수는 전체 20.0%의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살펴볼 때,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만족도의 영향요인으로 학년, 셀프리더십, 대인관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규명하여 추후 임상실습 만족도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기초 자료를 위한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관련 교육 과정에는 이러한 점을 추가 강조하여 적용하기 위한 효율적인 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간호 연구, 실무, 교육에서의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추후 본 연구를 통하여, 일부 간호대학생으로 한정되었던 대상자를 확대하여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이고, 간호대학생의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대한 요인분석 및 대처 중재 마련과 관련된 추후 연구 및 대인관계와 셀프리더십을 함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에 대한 연구를 실시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 REFERENCES

- Angelucci, P. A. (2005). For leadership effectiveness, look inside. *Nursing Management*, 36(11), 12-15.
- DiLiello, T. C., & Houghton, J. D. (2006). Maximizing organizational leadership capacity for the future.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319-337.
- Faul, F., Erdfelder, E., Lang, A. G., & Buchner, A. (2007). G\*Power 3: A flexible statistical power analysis power analysis program for the social, behavior, and biomedical sciences. *Behavior Research Methods*, 39(2), 175-191.
- Gu, H. J. (2009).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family support and nursing students's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aegu.
- Ha, N. S., & Choi, M. S.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leadership styles and self-esteem,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1(1), 1-9.
- Ha, S. B. (2007). *A study on the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ubordinate's self-leader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 Henrikson, M. (2006). Great leaders are made, not born. association of women's health. *Obstetric and Neonatal Nurses Lifelines*, 10(4), 335-338.
- Kang, Y. S., Choi, Y. J., Park, D. L., & Kim, I. J. (2010).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self-esteem,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6(2), 143-151.
- Kazan, A. L. (2000). *Exploring the concept of self-leadership*.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Ohio.
- Kim, H. K. (2007). Influence of interpersonal relations, communication skills, creative behaviors and nursing services on self-leadership among nurses in hospitals. *Clinical Nursing Research*, 13(1), 25-36.

- Kim, H. S. (2002). *Th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s self-leadership and the job satisfaction at secondary school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ngsil University, Seoul.
- Kim, J. Y., & Hong, J. Y. (2007). Self-leadership, job stress, and job satisfaction among clinical nurse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3(2), 176-183.
- Kim, S. L., & Lee, J. E. (2005). Relationship among stress, coping strategi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taking clinical experienc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1(1), 98-106.
- Lee, J. D. (2006). *The study of preceptor-guided nursing students' critical thinking propensity, clinical competency and satisfaction for clinical practi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nnam National University, Gwangju.
- Lee, S. H., Kim, S. Y., & Kim, J. A. (2004). Nursing students' image of nurse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0(2), 219-231.
- Lee, S. J. (1980). Level satisfaction on clinical practice of baccalaureate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10(2), 41-52.
- Manz, C. C. (1983). *The art of self-leadership: Strategies for personal effectiveness in your life and work*. New Jersey: Prentice Hall.
- Manz, C. C., & Sims, H. P. (1991). Superleadership: beyond the myth of heroic leadership. *Organizational Dynamics*, 19(4), 18-35.
- Neck, C. P., & Houghton, J. D. (2006). Two decades of self-leadership theory and research. *Journal of Managerial Psychology*, 21(4), 270-295.
- Neck, C. P., Stewart, G. W., & Manz, C. C. (1995). Thought self-leadership as a framework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 of performance appraisals. *Journal of Applied Behavioral Science*, 31(3), 278-302.
- Park, A. S. (2003). *Relation of autonomy in clinical practice and satisfaction of student nurs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osun University, Gwangju.
- Park, B. S. (2008). *Stress and satisfaction related to clinical practice by sex role identity amo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wandong University, Kangwon.
- Park, M. A. (2009). *Self-leadership, stress on clinical practice, and stress coping styles in nursing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 Park, K. N., & Park, M. K. (2008). A study on nurses' self-leadership,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nursing performan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4(1), 63-71.
- Seomun, G. A., Chang, S. O., Cho, K. H., Kim, I. A. & Lee, S. J. (2006). The relation between self-leadership and outcome of nursing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2(1), 151-158.
- Whang, S. J. (2002). Development and verification of a tool for the nursing students' clinical stress. *Journal of the Margaret Pritchard College of Nursing*, 14(1), 35-54.
- Whang, S. J.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Academy Society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Won, J. S., Kim, K. S., Kim, K. H., Kim, W. O., Yu, J. H., Jo, H. S., & Jeong, I. S. (2000). The effect of foot massage on stress in student nurses in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 Nursing*, 7(2), 192-207.
- Xabier, Z. G., Xabier, H. E., Mari, J. A. E., Mari, J. U. I., Inma, E. G., Maite, B. L., & Xabier, S. C. (2007). Stress sources in nursing practice. *Evolution during Nursing Training Nurse Education Today*, 27(7), 777-787.